

## 무탄소에너지(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 제15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계기 한, 일,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참여하는 CFE 글로벌 작업반 공식 출범 및 차기 CEM 의장국 한국 수입 확정

한국이 글로벌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작업반이 10.3일 공식 출범하였다. 아울러, 한국이 내년도 청정에너지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이하 CEM)의 의장국을 수입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브라질에서 10.1일부터 10.4일까지 개최된 CEM 및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CEM에서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글로벌 작업반 신설을 공식 발표하고, 별도의 발족 회의를 개최하였다. CFE 글로벌 작업반은 CFE 이행 기준\* 및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현재 한국, 일본, UAE, 체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국가·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국이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 무탄소에너지의 정의(범위), 기업의 조달 수단, 검·인증방안 등 일련의 기준

CFE 글로벌 작업반 발족 회의에서 안 장관은 영상 개회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해 여러 국가와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번 출범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 을 강조하였다. 또한 장 프랑소와 가네 CEM 사무국장도 “모든 무탄소에너지원의 활용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의 역할을 기대하고 지지한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CFE 이니셔티브는 2023년 9월 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최초 제안한 이후, 10개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23.12월) 결정문, IEA 각료회의('24.2월) 공동선언문 등에서도 모든 무탄소 에너지원의 기술 중립적인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번 CEM에서 회원국들의 지지에 힘입어 한국이 내년도 제16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의장국을 수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 루마니아, 사우디, UAE, 일본, 캄보디아, IEA 등

한편, 10.4일 개최한 G20 에너지장관회의에서는 △바이오연료, 수소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연료 확대, △공정한 에너지전환,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 계획 수립 지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각국 상황에 맞는 에너지시스템의 유연성과 안정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전이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목표 달성,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서기관	유재영 (044-203-5125)
			사무관	강봉조 (044-203-5122)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에너지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서기관	박근형 (044-203-4895)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사무관	임은성 (043-203-4248)
담당 부서	CF연합 국제협력팀	책임자	사무국장	양의석 (02-6050-1762)
		담당자	차 장	이만희 (02-6050-1765)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